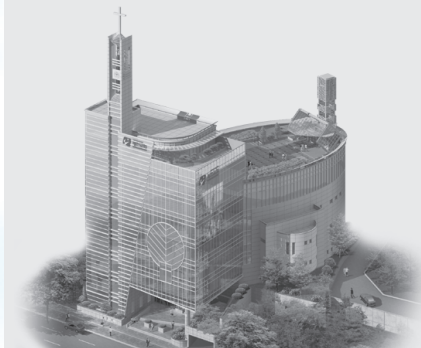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37.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음 - 왕 사울

본문: 사무엘상 15장 17-23절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키까지 치라 하셨거늘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목장 모임을 열면서 미국 경량철골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철강회사 ‘패코’는 한국인 백영중 씨가 설립했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던 그때, 그는 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차별에 맞서 더욱 심기일전 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1,500대나 되는 트럭을 일일이 관리하여 배달 시간을 어김없이 지켜냄으로 열정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그는 다시 마음을 잡았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적당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좋은 상품을 개발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심으로 돌아갔다. 수십 업체에 무료 실험을 의뢰하고 품질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다. 유통 시스템을 빈틈없이 정비해 작은 물량이라도 약속 시간을 어김없이 지켰고, 설계 변경 요청에는 ‘그것뿐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제작하겠다.’고 응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재기에 성공해 서부 시장에 이어 동부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때만해도 사울은 어떤 왕이었는가(17절)?
2.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며, 그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행하였는가(18-21절)? (참고 / 아말렉 족속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멸절시키려 했던 죄였음. 2절, 출 17:8-13)
3.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22절)?
4. 사울이 지은 죄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23절)?

연구와 묵상 Insight

5.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왕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렇다면 현재 사울은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6.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22절)’ 라는 말씀은 제사를 무시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인가?

보충

제사로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을 드릴 뿐이지만, 순종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바친다. 그러므로 순종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영적인 제사인 것이다.

7. 누구나 초심은 단단하고 화려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해지고 흐트러진다. 그 이유를 심리적, 육체적, 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라!

8. 사울처럼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제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가 다시 결심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담으면서 이런 속담이 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 일을 그르치게도 만든다.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초심에서 빗나가버린 삶 때문이다. 부부가 불행한 것은 초심에서 벗어나버린 애정 때문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의 시계를 주시하라. 두 개의 시계는 불확실하다.

38. 심판은 하나님께 있을 - 알 다윗 1

본문: 사무엘상 24장 1-8절 / 14-15절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보르도 지역의 전직 경찰 책임자인 모리스 파퐁(87세)은 반인류적 범죄로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파퐁은 나치의 프랑스 지배가 끝난 뒤에도 샤를 드골 대통령의 밑에서 파리 경찰국장을 지냈으며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그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계기는 1981년 한 신문에 의해 유대인들을 대거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 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그였지만 유대인 희생자 가족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1983년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의 반인류 범죄로 프랑스 전직관리가 법정에 선 것은 파퐁이 처음이었다. 악인 중에는 당대에 재앙을 받아 죄 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행동하고 잘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가 평생 누렸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는 빈손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악의 실체는 드러난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1.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군사는 몇 명인가(2절)?

보충 '삼천'은 사울이 일찍이 수많은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를 때 동원했던 수효와 동일한 병력 규모이다(13:2). 사울은 이 규모의 병력으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 육백 명(23:13)을 일거에 제거시키려고 했다.

2. 사울이 '뒤를 보러' 깊은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4절)?

보충 '뒤를 보러'는 '용변을 보다'라는 완곡한 표현이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출처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것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5-6절)?

4. 원수인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맡기는가(14-15절)?

연구와 묵상 Insight

5.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반응은 다르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도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을 마냥 품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윗이 ‘마음에 찢린’ 이유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 보자.

삶에 적용 Discernment

7. 내 손으로 심판하고, 내 입으로 저주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사적인 감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라!
8.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의 심판을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라!

묵상 모임을 닫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듯이 말했다. ‘여러 이야기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청년에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일세!’ 거만하고 악한 사람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리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한다.

39. 하나님 앞에서 체면은 없음 - 왕 다윗 2

본문: 사무엘하 6장 14-23절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의 궤를 메어오니라 16 여호와 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7 여호와 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상담을 의뢰 받은 한 부부를 각각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았다. 남편은 ‘저희는 10년 동안 쪽지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얼마 전 마트에서 어떤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은 주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착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가족과 외부 사람들에 대해 달라요. 집에서는 분리수거 한번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청소하고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다 합니다. 남들은 제 속도 모르면서 부럽다고 해요. 이런 소릴 들을 때, 저의 기분이 어떨겠어요?’ 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자신이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존심(체면)을 세우기에 서로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상처만 주고 있었다. 자존심(체면)을 버릴 때,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찾아온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14-16절)?

보충 '베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던 것으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소매가 없는 일종의 겹옷이다.

2.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무엇인가(20절)?

3. 미갈의 업신여김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인가(21-22절)?

4.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대가는 무엇인가(23절)?

보충 미갈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둘째, 하나님의 가시적 보좌인 법궤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셋째,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로 자식이 없게 된 것이다.

연구와 묵상 Insight

5.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를 그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심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왜 틀렸는지 묵상해 보자.

6.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위와 체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자.

7.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식이 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된다. 나의 자존심을 지킬 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 나누어 보라!

8. 예배 시간에 온 맘을 다해 찬양하고 그것을 온 몸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체면과 자존심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담으면서 서양에서 전해오는 재미있는 실화가 있다. 스페인 남단에 있는 지브롤터는 영국에서 유럽 대륙 진출의 교두보적인 요새였다. 스페인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지역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만 하였다. 스페인 여왕은 ‘지브롤터 성에 스페인 깃발이 나부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억지 고집을 부렸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사령관은 어느 날 아침, 성벽에 스페인 국기를 1분 동안 휘날리게 했다. 그러자 여왕은 군대를 철수시켰고, 전쟁은 끝이 났다. 실리와 체면, 진실과 형식의 기로에서 인간은 진실의 탈을 쓴 체면을 택한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누구인데… 라는 인간 유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헌금은 이만큼 해야 하고, 차는 이 정도를 타야하고, 예배는 이만큼 참석해야 하고… 체면과 형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행위보다 더 위에 둔다. 오직 거듭나는 체험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외식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

40.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 - 왕 다윗 3

본문: 사무엘하 12장 7-17절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저녁집회가 열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갔다. 그러다가 14일 저녁집회 때,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나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 시에 나를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 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썸에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는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 해 주셨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무엇인가(7-8절)?
2.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9절)?
3.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10-11, 14절)?

보충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 붙어 동침한 사건(16:21-22절)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4. 다윗의 아이가 심히 앓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15-17절)?

보충 이때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詩)가 시편 51편이다.

연구와 묵상 Insight

5.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당시에 행할 수 있는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를 참고로 묵상해 보자.
6.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작한 회개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7.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혹독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다. 그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히브리서 12장 6절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라!

8. 회개는 돌이킴이다. 그 돌이킴은 죄의 대가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 앞에서의 책임이다. 나는 어디까지 회개하고 있고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항해 중에 있는 배의 키잡이 선원이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 항진시키고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하였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갑판을 뒀는대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퍼낼 준비를 시킴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배를 구조하려면 배의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려 배의 방향을 돌려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죄라는 위험한 바위에서 방향을 돌려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키를 돌릴 때, 배 전체가 방향을 바꾸듯이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낳는다.

41.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우선 - 왕 솔로몬 1

본문: 열왕기상 3장 4-14절

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이다. 세실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이 들어있는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정말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애야, 그것을 불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딸은 당황하고 망설였다. 그것은 대단한 시험이었다. ‘네게 강요하지 않겠고 이유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딸은 고심을 하다가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속에 던졌다. 그일 후에 아버지는 딸이 갖고 싶어 했던 더 아름다운 구슬을 딸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 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여겼는가(7절)?
2.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자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8-10절)?

보충 고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에 솔로몬이 행한 통치의 첫 업무는 재판이었다(16절 이하).

3.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텅으로 주신 복들은 무엇인가(13절)?
4. 이 모든 복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제시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14절)?

연구와 묵상 Insight

5.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의 겸비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를 근거로 묵상해 보자.
6.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세우신 조건은 ‘말씀에 순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묵상해 보자.

보충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요 14:21)

7. 솔로몬은 ‘자기 욕심’ 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사명’ 대로 구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왜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원과 그 동기를 점검하고 나누어 보라!

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유독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A. W. 토저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성공과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삼상 2:30).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라는 책에 0과 1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낸다. 그에 반해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뜻한다. 0과 1의 수학공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0.1, 0.01, 0.001 ... 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10, 100, 1000 ... 그 수는 백 배, 만 배, 백만 배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우선인 사람은 백만 배 이상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42. 타협하면 타락한다 - 왕 솔로몬 2

본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네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어느 고등학교의 축구감독인 마이크 슬러터 감독은 2002년 시즌 때, 그가 ‘평생 단 한 번뿐인 팀’이라고 부르던 축구 부원들을 데리고 주 우승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주전 선수들을 비롯한 16명의 선수들이 미성년자로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평소 슬러터 감독은 선수들에게 술이나 담배,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팀에서 제명시킬 것이라고 말해 왔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국 그는 선수들을 모두 제명시켰다. 슬러터 감독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결국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날 팀은 63대 0으로 패했다. 하지만 그 팀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3, 7, 8절)?

2.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은 왜 범죄가 되는가(2, 4, 6절)?

보충

열거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 외에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도 포함된다(신 23:3 이하). 솔로몬이 이러한 나라들과 통혼하게 된 데에는 외교적 목적이 분명 들어 있었을 것이다.

3.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11-13절)?

연구와 묵상 Insight

4. 솔로몬의 타락은 정략결혼이 발단이었다. 고대에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략결혼이 필수였다. 만약 솔로몬이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묵상해 보자.

5. 솔로몬의 타락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들의 요구대로 우상의 전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방여인들과 타협하기 시작한 지점은 어디였을지 묵상해 보자.

6. 내가 나의 재산, 가족, 자존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타협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라!

7. 이미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 혹 그것을 위해 서로에게 건네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타협(妥協)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서로 좋도록 절충하여 협의하다’라는 의미이고, 지조(志操)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나 기개’ 즉, ‘굳게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좋은 조건의 제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변개치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다. 신앙의 지조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의 신부됨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며, 세상의 온갖 영적 더러운 것들로부터 영적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롯은 세상 성공과 타협함으로 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나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신 7:1-5)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땅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을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참된 신앙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 결코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것이다.

43. 악해도 견비하면 산다 - 왕 아합

본문: 열왕기상 21장 17-29절

17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 하였다 하라 20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쏘아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신학자 폴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폴리처 박사는 조용히 학생에게 대답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겸비할 때였음을 잊지 말자!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아합의 죄는 무엇이며, 그 대가는 무엇인가(19절)?
2.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21-24절)?
3.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악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25절)?
4. 심판받아 마땅한 아합이 겸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가 (29절)?

연구와 묵상 Insight

5. 아합이 그토록 악해진 데에는 아내 이세벨의 몫이 크다. 그럼에도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멀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5절의 ‘그 자신을 팔아’ 라는 말을 바탕으로 묵상해 보자.
6. 아합이 그토록 악한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 분명 아합의 겸비는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진실한 겸비의 힘을 묵상해 보자.

삶에 적용 Discernment

7. 내 속에 숨어있는 악함에 기름을 붓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주위에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나 조건들이 있다면 진솔하게 나누어 보라!

8. 진실한 겸비는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낸다. 나에게서 진실한 겸비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겸비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담으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펀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아 탄식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비같이 쏟아질 것이다.

44.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 왕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8-19, 28절

8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앓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앓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9 앓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앓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앓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해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앓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 28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목장 모임을 열면서 고대의 숙련된 건축가였던 크니이두스는 애굽의 바로를 위해 한 땅대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건축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벽의 한 돌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새겨 놓고 역청으로 그것을 가린 다음에 겉에는 금으로 애굽의 바로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바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행해진 것처럼 가장해 놓았던 것이다. 그는 오랜 풍상의 세월을 거치면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 자신의 이름과 공로가 미래 세대에 길이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동기를 아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아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앓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10-11절)?
2.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인가(14절)?
3.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15-19절)?
4.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28절)?

연구와 묵상 Insight

5. 앓수르 왕 편지의 주장은 그의 주권과 명예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예이다. 이 두 주장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는가?
6. 히스기야 기도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예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살기 위해 몸부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자.

7.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문제의 크고 작음이나 나의 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8.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몸부림을 치는가? 나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것인지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 그 결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것은 백지 수표이다.